

노지문화 보존 및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활동하는
노지문화 생태예술가

신 의 주

신의주

마을 사람들과 인권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대정읍 하모리에 책방을 열었다. 마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그림책 연구수업’, ‘우리동네잡학사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송악산 진지깡도와 이 지역의 노지문화 역사를 조사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활 동 명 : 진지동굴의 진지한 이야기

대 상 : 송악산 진지동굴

결 과 물 : 드로잉 소책자

기 록 : <https://youtu.be/RkmI3mnq6A>

1. 그간 어떤 활동을 해오셨나요?

저는 여기 대정에서 나고 자랐어요. 해외에서 일했는데, 주로 국제개발협력이라고 해서 개발도상국에 가서 그곳에 필요한 일들을 합니다. 주로 소수자들을 위한 일이었는데, 해외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 어쩌면 내가 사는 마을에 이런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커피가 생산되는 지역의 농가에 우리의 소비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결국 커피 한 잔에 매우 많은 문제가 담겨 있다는 점을 깨닫고 소비자가 살고 있는 이곳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러한 문제들을 나누어 보고자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다양한 이슈에 관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어나더 페이지’라는 책방을 열게 되었습니다. 책방의 문을 열어두고 마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싶어서 ‘그림책 연구수업’ 그리고 ‘우리동네잡학사전’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그러던 중 관심을 두게 된 것이 송악산에 있는 외륜진지동굴이었습니다. 관광객들 사이에서

이곳이 공짜로 멋진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일종의 명소로 소문이 났다는 점, 하지만 정작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아온 지역 주민들조차 이곳이 전쟁기지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하며 다크투어리즘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던 중 생태예술가 활동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이곳의 역사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소책자를 발간하고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 작가님이 주로 활동하시는 지역의 노지문화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는 사람들이 사는 공간에서 자연적 혹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갯도 자체를 문화로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다가, 결론적으로 이곳은 노지역사문화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진지동굴은 전쟁 기지화를 위해 한때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곳은 철새나 여러 동물의 쉼터가 되었고, 현대에 와서는 해녀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가 쉴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점차 이곳이 사람들에 의해 변화되어 이용되었다는 생각에 역사와 더불어 문화라는 글자를 더하여 노지역사문화라는 관점을 통해 이 지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4. 작가님이 바라는 노지문화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곳 대정은 공군, 육군, 해군이 다 있어요. 모슬봉에 있는 공군기지, 강병대교회 앞에 있는 해병대, 알뜨르비행장에 있는 공군기지 이렇게 3개를 일부러 만들면서 중국을 침공하기 위해 모슬포 전체를 군사기지화 하고자 했습니다. 사료집을 연구하다 보면 일본이 패전 당시에 수많은 군사 시설들을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언급되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많은 이야기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소책자에 담을지 고민이 됩니다. 역사가 끝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송악산 외륜진지동굴 뒤편 언덕(섯알오름) 밑에 어마어마한 갯도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제일 긴 갯도인데, 대정읍 주민들도 잘 모르고... 대부분의 사람이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보존이 잘 안 되어 있어요. 단지 더 무너지지 않도록 아치형 철근구조만 세워둔 상태입니다. 그게 전부인 상태라는 점이 너무 안타까워 이런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갖고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소책자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학술지가 있지만, 사실 사람들이 다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된 사실을 글과 그림으로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 틈틈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그림 작업하는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답사도 다녀오며 조금씩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곳이 그렇겠지만

(대정은) 역사 문화적인 공간이 깊이 자리하고 있어 그걸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사포진지와 진지깡도가 있는 곳은 앞으로 거대 리조트가 들어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게 들어서면 깡도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유적지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적인 증거들이 반드시 보존되어야 후대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와서 무언가를 보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중요한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 지역민으로서 마음 아픕니다. 많은 것들이 얹혀 있다고 느껴집니다.

현장

현장 답사 및 인터뷰 (사진 출처: 스튜디오 sssstudio)

하모리에 위치한 작가의 공간



상모리 (송악산 진지동굴) 답사 및 기록



현장

기록 (사진 출처: 신의주)





